

막판 쏟아지는 전화·문자 폭탄에 유권자 '신음'

출마자들 과도한 홍보 경쟁...단체채팅방 반복 초대도 "불쾌 넘어 피로감 호소...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 불러"

제9회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선거 문자와 홍보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전화(ARS) 발송이 급증하고 있다.

2일 공식선거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 최대 8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수신 대상을 20명 이하로 나눠 발송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무제한 발송이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상당수 유권자들은 저장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일반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선거 홍보 전화와 문자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발송 내용 역시 정책 소개보다는 후보 지지 호소나 정당 투표 독려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 김모(36·광주 동구 계림동) 씨는 "업무상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도 받아야 하는데 하루 두세 통씩 선거 관련 전화가 오면 허탈하다"며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 후보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단체대화방을 활용한 선거 홍보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초대한 뒤 후보 홍보물과 기사, 선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채팅방을 나가더라도 다시 초대되기도 한다.

한 채팅방은 '주 2회 이내 홍보 게시물 등록', '오전 8시~오후 9시 운영' 등의 자체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 문구와 포스터가 수시로 게시되며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박모(50·광주 서구 화정동) 씨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문자와 전화 때문에 불쾌감을 넘어 정치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생긴다"며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선거운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관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투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유권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타 지역 후보 선거운동 전화가 반복적으로 와 업무에 방해된다", "번호를 바꾼 지 3년이 넘었는데도 하루 10건 넘게 선거 문자가 온다",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온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선거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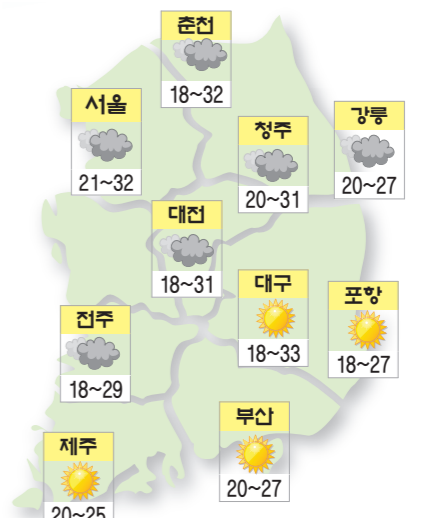
장병고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자와 전화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

렵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차원에서 수신자의 반응을 고려한 자체적인 필터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 "유권자들은 발신번호를 통해 선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문자가 발송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19	달출	22:24
해질	19:43	달림	07:08



광주	구름	19~30
목포	구름	19~27
여수	구름	19~27
순천	구름	19~30
구례	구름	18~31
광주	맑음	17~29
신도	구름	18~30
흑산도	구름	18~24
진남	구름	18~29
진도	구름	17~26

목포	미물(고)	04:02 / 15:43
	샘물(저)	02:09 / 21:01
여수	미물(고)	10:27 / 23:09
	샘물(저)	04:45 / 16:25

친부모 때린 패륜 10대

만년필 ○...친부모를 둔 기 등으로 폭행한 10대가 부모의 간절한 선거 호소 덕분에 실형을 면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 재판장 서지혜 판사는 특수준속상해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교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A군은 지난 3월5일 광주 자택에서 딸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아버지까지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내재된 폭력성도 상당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부모가 선거를 탄원하고,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부모와 학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내년 신입생 모집

전국 3위 규모 간호대 출범

조선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을 최종 승인받았다.

조선대는 2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조선간호대와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독립 단과대학인 '간호대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 간호대학은 입학정원 232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4년제 대학 기준 전국 3위, 호남권 최대 규모의 간호대학으

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올해 2학기 수시모집부터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

이번 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대학은 지난 2020년부터 통합 논의에 착해 업무협약 체결, 통합추진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 구성원 의견 수렴, 이사회 심의 등 약 5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시교육청, 3428억 추정 편성...행정 통합 대비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에 대비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올해 본예산보다 3428억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186억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000억원, 기타 수입 242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추경안이 광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2조8256억원에서 12.1% 증가한 3조1685억원으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교육 현장 지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시설 안전 확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준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278억원을 반영했으며, 학교 운영비는 기존보다 약 15% 늘어난 18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폭행 노린 계획범죄"

검찰 전담팀·보안수사·납치·강간 시도 살인 결론 스토킹·불법촬영 등 추가 범행...'강간등살인' 기소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의 범행이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부딪히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고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직후 형사3부 전례를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하고 현장검증과 추가 압수수색,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통화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장윤기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우발적 범행' 진술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저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동료로 수년간 스토킹한 뒤 지난달 3일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범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다니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7월 사립복무요원 혐의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

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직장 동료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점도 성범죄 목적 범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장윤기가 주장한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검찰은 숨진 이양의 유족에게 심리치료와 장례비, 생계비 지원을 연계했으며,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는 치료비와 범죄신고자 구조금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향후 공판문 직접 수행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봄 평균기온 13.8도...역대 세 번째

지방기상청 기후특성 발표...평년비 1.2도 ↑ 광주 32.7도...일부지역 역대 가장 이른 폭염

광주·전남지역의 올해 봄철 평균기온은 13.8도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월에는 일부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폭염이 나타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봄철(3~5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올봄 평균기

온은 13.8도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23년과 2024년(각 14.0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평년(12.6도)보다 1.2도, 지난해(13.1도)보다 0.7도 높았다.

고온 현상은 3월 하순과 4월 중순, 5월 중순에 집중됐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강한 일사량이 더해져 낮 최고기온

이 크게 오르면서 광주·전남 곳곳에서 이상고온이 발생했다.

실제로 4월15일 강진은 27.2도를 기록했으며, 5월 17~18일에는 광주 32.7도, 장흥 31.7도, 완도 30.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이들 지역은 해당 시기 일 최고기온 극값을 새로 썼다.

특히 5월 중순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9.6도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중앙시베리아 부근에 형성됐던 상층 기압능이 우리나라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

적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강수량도 평년을 웃돌았다. 올봄 누적 강수량은 369.7mm로 평년(307.7mm)의 124.7% 수준이었으며, 강수일수는 27.7일로 평년보다 1.3일 많았다.

비는 4월 상순과 5월 20~21일에 집중됐다. 4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고, 5월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발달한 저기압이 만나 많은 비를 뿌렸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100~200mm 안팎의 강수가 기록됐으며, 여수(124.0mm)와 완도(138.4mm)는 5월 중순 기준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높았다. 봄철 평균 해수면 온도는 14.0도로 최근

10년(2017~2026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월별 평균은 3월 11.5도, 4월 13.6도, 5월 16.9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0.4도, 0.5도, 0.9도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 10.4도, 남해 16.3도, 동해 15.4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0.9도, 1.7도, 2.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수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올봄은 기온 상승 추세를 체감할 수 있는 날씨가 이어졌다"며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충장로 도깨비장터 6일 열린다 공연 등 풍성...상품권페이백도

광주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거리축제 '충장로 도깨비장터'가 오는 6일 동구 충장로4~5가 일원에서 열린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충장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같은 날 남남로에서 열리는 차옴는 거리 행사와 연계해 오후 3~8시에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충장상인들이 참여하는 플라마켓 20개 부스를 비롯해 먹거리 부스 2개소, 아나바다 부스 1개소, 푸드트럭 3대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행사 당일 충장로 일원 상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차옴 선착순 3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해주는 페이백 이벤트가 진행된다. 동구는 이를 통해 방문객의 현장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